

소리없는 권력

문자의 힘

문자열의 공포행위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생물학적인 존재이다. 모든 생물학적인 존재는 그들 나름대로의 발성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타동물이 단지 '소리'만으로 본능적인 자기신호를 내보일 정도인데 비해, 인간은 느낌과 사고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우월한 삶을 산다. 천부의 소리를 언어(음성언어)로 재창조하여 사용하는 생명체야말로 인간만이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문명한 삶으로 진화해 온 오랜 역사를 누린다.

언어는 인간생활의 제반현상을 표현하는 가장 뛰어난 소통수단이라 한다. 그런 언어는 표현의 시점으로부터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요컨대, 발화(發話)되자마자 사라지는 '소리'로서의 한계가 언어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구한 전달성을 갖춘 정적(靜的)인 기호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욕구를 실현한 수단이 문자로 대표된다.

문자는 또한 인간의 삶 속에서 쌓아온 경험내용과 그로써 창출한 여러 생각의 과정이나 결과를 콘텐츠로 조립하여 공포하는 기록기호이다. 그런 문자가 생성된 실마리를 보면, 아주 원시적인 표현방법(매듭문자, 색패 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렇게 하여 '쓰기(writing)'로 전환되어 나간 것이 문자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고도의 창의적인 매개수단인 죽간(竹簡), 목牍(木牘), 점토책(clay tablet) 등으로 진화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매개수단들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달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적 인습을 생성케 했는데, 이것이 인쇄·출판행위로 표출되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전통적인 문화매체를 일컬어 우리는 책이라 말한다. 그런 책은 문자열의 덩어리로 묶여져 우리의 의식을 두드린다.

문자열은 문자들의 조합질서에 따라 의미가 부여된 글로 성안된다. 만일, 문자만 있고 문자열로 조립되어 있지 않다면 말 그대로 무의미한 음절들의 나열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생활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순이니 어문법 등과 같은 약속된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보다 수월한 소통행위가 열려 나가게 되었다. 출판물은 바로 그런 점에서 언어·문자생활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매개수단으로 역할해 왔다. 아울러, 사유의 변천과정을 설명해 주는 극명한 물증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일이 있다. 새삼스러운 지적이지만, 출판의 존재를 가능케 한 '인쇄술'의 힘,

그 복제술의 역할을 말함이다. 인쇄와 출판은 넓은 의미로 보아 복제술이라는 반복적인 지식·정보생산 활동으로 용해되는 궁극적이고도 공통된 지향점을 추구한다. 그래서 저명한 출판학자인 베일리 2세는, “인쇄는 출판에 이바지하고, 출판은 또한 문명에 이바지한다”고 함축한 바 있다. 만일, 이 두 가지가 일련성으로부터 이탈된 것이었다면 오늘에 이르러 과거를 알 수 없고, 내일에 대응한 비망(備忘)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 모두는 문자와 그 문자의 체계적인 집합인 문자열에 대응한 사상과 감정의 공포행위라는 문화적 의미로 압축된다.

쉼표와 마침표에 관한 이해

단어들의 집합인 문자열을 갖추자면, 글줄이 지닌 앞뒤 호응을 잘 풀어 주는 문장부호의 사용이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곤 한다. 컴퓨터에서 ‘한글(HNC) 문자표’ 중 ‘전각기호’에 제시된 문장부호를 쏴아보니 모두 122개나 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 문장부호는 구두점(句讀點, punctuation)류인 쉼표(.)와 마침표(.)일 것이다.

구두점은 글을 문장으로, 문장은 절이나 구로 나누기 위해 표시하는 부호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점’ (라틴어 punctum은 ‘점’의 뜻)은 문장이나 절 또는 구 끝에 찍어, 사이를 두게 한다든지 말투가 바뀌는 부분을 나타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건으로 뒷받침된다. 또, ‘마침표’의 경우는 문장이 끝났거나 중지된 상태를 나타내는 유일한 부호로 존재한다.

강조할 나위도 없지만, 주어부와 술어부가 갖추어진 문장이라면 대체로 한두 군데의 쉼표를 찍어 읽기편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고, 중지부에는 마땅히 맺음부호인 마침표로 마무리해야 문장활용이 바르게 된다. 그런데 문장부호는 그 나라의 언어가 지닌 전통과 어문법에 따라 다른 쓰임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쉬고 끝맺음의 필요성은 매양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 다만, 쉼표는 동양문자(단음절 단음가의 문자, 한·중·일 3국문자 등)일 경우 적절한 자리에 ,(가로쓰기) 또는 ´(세로쓰기)표로 표시하고, 마침표는 ‘.’ 또는 ‘.’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각각의 적용값은 같다. 이 둘 중에서 쉼표의 경우는 가로쓰기(가로짜기)를 적용하는 전세계 모든 언어권의 나라들에서 ,(콤마)를 사용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 이는 자형의

약속이기도 하다.

그런데 쉼표와 마침표문제로 국제적인 이해가 엇갈려 큰 갈등을 빚고 있다면 언뜻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자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수궁하면서도, 설마 글줄의 부가요건에 지나지 않을 뿐인 일개 문장부호를 놓고 국제적 갈등까지 빚게 되다니!

이 같은 의구심은 실제로 2003년 10월 13일~16일에 파리에서 열린 국제도량형위원회의 중심의안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동일한 마라톤 코스의 길이를 놓고 동양권나라들과 미·영 등에서는 42.195km와 같이 소수점을 마침표로 표기하는 반면,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42,195km로 표기하여 쉼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하여 국제금융, 통상, 학술분야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되어 온 실정이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영어가 사실상의 세계어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표의 소수점 표기’로 통일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국가수와 인구수로 따지면 쉼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맞섰다. 그들은 서로 간에 “그건 당신네의 생각이야!”라고 발끈했던 것이다.

그 후, 쉼표와 마침표의 소수점사용에 대한 통일안이 마련되었다거나, 어떤 약속이 현실화되었다는 소식은 아직 들은 바 없다. 이로 보아, 하나의

■ 문자열은 문자들의 조합질서에 따라 의미가 부여된 글로 성안된다. 만일, 문자만 있고 문자열로 조립되어 있지 않다면 말 그대로 무의미한 음절들의 나열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생활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순이니 어문법 등과 같은 약속된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보다 수월한 소통행위가 열려 나가게 되었다.



문장부호를 둘러싼 이해는 국제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알게 한다. 이렇듯, 문자생활에서의 문장부호는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요건이라는 부동의 확인에 이르게 된다. 한 예로, 흔히 글줄의 머리에 사용하는 ‘그러므로’라는 뜻을 가진 접속부사 ‘따라서’와 관련하여, 쉼표 사용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따라서, 가는 사람이 많다”라 했을 때와,

“따라서(從) 가는 사람이 많다”의 경우에서처럼 전혀 다른 뜻으로 갈라서는 사례가 그런 것이다. 우리의 언어·문자생활에서 그런 용례는 얼마든지 많다. 마침표 역시 문장의 맺음여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문맥의 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를테면, 문장부호는 문맥의 흐름을 명확하게 안내해 주는 길목의 신호등과 같다.

문자는 소리 없는 권력

앞에서 살폈듯이, 하나의 단위기호들인 문자는 말을 대신한 문자열로 재현되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전달하는 인지기능을 극대화시켰다. 따라서, 문자열에 일정한 형식의 배열규칙(어문법 체계)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첨예한 소통수단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그러한 과정에서, 표현의 적확성(的確性)을 돕는 문장부호를 적재적소에 매겨 더욱 명료한 문맥설정이 가능할 수 있었다.

되살펴보면 문자는, 문명이 덜 발달되었던 시대에는 권력자의 전유물이다시피 하여 스스로를 위한 율법을 만들고(문자로 규정하고), 고치고, 폐기하는 것조차 그들 마음대로 감행한 대상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민의에 의한 여러 율법들은 또 다른 ‘다수의 민의’가 아니라면 이미 정해져 있는 대로 고정되게 마련이다. 바꾸어 말해서, 법을 고친다는 것은 결국 그 법률에 조직되어 있는 문자열을 고친다는 말과 같다. 그

것은 다만 한 글자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제도가 관이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최근, 사학법 재개정현안과 관련하여 ‘등’자의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본다. 요컨대 ‘홍길동, 김철수’라 단락 짓는 것과, ‘홍길동, 김철수 등’이라 하여 한계를 열어 놓는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견해차이 때문이다. 물론, ‘등’이라는 의존명사는 자립성이 없는 품사인데, 사용하기에 따라 대단한 확산력을 장비한 ‘힘의 글자’로 역할한다. 이쯤해서 다니엘 벨이 남긴 단호한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기차를 움직이는 것은 기관사가 아니라 시간표다”라고 설파했던 것이다. 대피선과 통과선의 시간이 통제된 ‘문자표’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나? 음미해 볼수록 의미심장한 말이다.

새삼스런 지적이지만, 인쇄나 출판에서 문자를 말할 때는 보통 ‘활자’라 한다. 활자에서의 ‘활’은 ‘活’이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영어에서도 동태적 의미의 ‘type’란 말을 활자라 이르는가 하면, 아예 ‘움직이는’이라는 뜻의 형용사를 붙여 ‘movable types’(活字)라 부르기도 한다. 활자의 위력은 이미 이름을 붙인 당초부터 매겨 있었던 게 아닌지. 더러는 편집자들 쪽에서 진땀 내며 찾아내려 애쓰던 오자를 나중에야 발견하고, 그것이 ‘活字’인 까닭에 숨어 있었다고 낙담하는 경우도 그런 속성을 빚낸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전달내용을 활자로 재현하면, 그 낱낱의 문자가 어울려 일정한 뜻을 내보이게 되는데, 이는 소멸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전송 메시지로 구원한 삶을 살아간다. 이 때문에 고정된 문자야말로 소리 없는 권력이기도 하다. 세상의 온갖 현상이 문자열로 정립, 보고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다시금 새로운 도열을 갖추어 나가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이는 소리 없는 선고인 동시에, 장구한 역사를 증거케 하는 마력의 힘으로 존재한다. 따지고 보면, 인쇄·출판인들은 그런 문자의 힘을 배양해 내는 조율사가 아닌가.

이종국·혜천대 교수·출판학

